칼 럼

정 기 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새롭게 변화된 새벽을 여는 사람

성공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남보다 먼저 도전 한 사람이었다.

날마다 오는 새벽은 바뀌는 변화를 맞이하며 변화의 시작이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성공하려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화, 도전, 창조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새벽은 밤의 어둠이 떠오르는 태양의 빛에 밀려나고 여명이 밝아오는 시간을 말한다.

어둠에서 밝아지는 것으로 변화의 시간이다.

이 변화의 시간에 남보다 먼저 일출을 맞으려 영일 산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새벽의 움직임은 다양하고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새벽을 먼저 알리는 동물은 닭이며 새벽닭 울음이다. 동물 중에서 닭은 빛을 먼저 감지하고 새벽을 알린다고 한다.

기독교에서는 교회당 지붕에 닭을 장식하고 불교에서는 닭 우는 시간에 항시 참선한다는 의미로 '계명정진(鷄鳴精進)'이란 용어를 쓴다.

깊은 산골에선 새벽의 적막을 깨고 울려 퍼지는 절간의 새벽종 소리와 스님의 목탁 소리가 새벽을 열고 있고, 교회의 새벽종 소리도 새벽을 열고 있는데, 길거리에는 새벽기도를 가는 성경책을 든 신도들이 한적한 아침 길을 바쁘게 걷고 있다.

시장 거리에서는 손님맞이를 위해 행상들이 자리 잡기를 하고 가지고 온 물건을 진열하는데 바쁘게 손질을 하면서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침을 오고 있지만 오는 아침을 맞이하고자 남보다 먼저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침을 여는 사람이고 아침이 오고 있음을 일깨우는 사람들이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다. 무엇인가 이루려고 남보다 앞장서려는 선의의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성공하려는 꿈이 있는 사람은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들어 함께 새벽을 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고 시작에는 꿈과 희망과 계획이 따른다. 남보다 먼저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하루를 실속 있게 꾸려 가는 사람들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는 일은 사람마다 다르다. 새벽기도 아침 독서 아침 공부 아침 운동 등을 하면서 하루를 희망을 품고 열고 있으며 밝아 오는 새날의 태양을 맞이한다. 나에게 오는 새벽을 내가 맞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새벽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잠꾸러기가 늦잠을 자기 위해 새벽닭 우는 것을 막으려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있다. 닭을 못 울게 한다고 해서 오는 새벽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는 새벽을 내가 먼저 나가 맞이하고 열어서 희망찬 하루가 시작되어야 한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의 새마을 노래가 있는데 우리나라 근대화의 새마을 운동은 새벽을 모든 국민이 여는 개척정신과 근면 정신을 일깨워 주었다. 남이 열어준 새벽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새벽을 내가 열고 새날을 맞이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희망적이고 적극성이 있다.

새벽에 할 일은 나를 위한 계획의 시간이다. 나의 하루를 값있게 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다. 이 기도는 나의 하루를 보람 있게 이룩하는 데 중요한 다짐의 시간이다.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은 새벽종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면서 알리고 있고, 기도로 시작하는 아침은 사랑으로 시작된다.

사랑은 돕는 것이며 내가 나를 돕도록 할 일을 찾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고 남보다 먼저 행동으로 실행하자고 다짐하는 새벽을 열어야 한다.

남이 열어 주고 저절로 열어지는 새벽이 아니라, 내가 일찍 일어나 나의 새벽을 내가 여는 시간으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아침은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변화의 시작이다. 어두웠던 밤에서 밝은 낮으로 바뀌는 변화의 시작이 아침이다.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가 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며 할 일을 찾는 시간으로 새벽을 열었으면 한다.

새벽에는 하고 있는 일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긍정적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다. 변화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창조며 창조 정신이 투철한 성공하는 사람은 변화 도전 창조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어제의 내가 아닌 늘 새로운 나를 만드는 새벽을 여는 사람으로서 아침 새벽을 열고 나의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자.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격변의 시대, 확고한 안보의식 정립 필요하다

지금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앞두고 80일 전투가 한창이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북한의 80일 전투라 함은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해 기한을 정하고 주민 노동력을 총동원하는 운동을 말한다.

여기에 유엔의 대북 제재부터 코로나19, 중국과의 교류 중단 등 요인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1인 독재 세습을 유지하기 위해 고립을 자초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인지라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김정은 우상화 본격화 등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립을 모면하고 군사대국을 꿈꾸며 극단적인 대결을 조장하면서 온 세계를 격동의 시대로 몰고 가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확고한 국가안보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때이기도 하다.

북한의 독특한 공산화 체제유지 정책으로 인해 주변 국가와의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우리의 안보정책 또한 좌고우면 자세를 갖아서는 안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지 모르는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국민 모두의 안보의식이 더욱 강화돼야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위협에 대처 할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안이해진 안보의식은 대한민국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결국 북한이 의도하는대로 자유민주체제가 서서히 붕괴되어 가는 수순을 밟게 된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안보 역량 확보만이 북한의 각종 도발위협 자체를 억제할수 있고 만약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 이순간 우리가 굳건히 쌓아온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에 쉽게 휘둘리지 않도록 안보의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순국선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몸숨을 희생하며 지켜낸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주국방 의지와 확고한 안보의식 정립은 필수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